

해외한민족연구소가 걸어온 길

(사)해외한민족연구소는 1989년 설립된 이래 25년 동안 국내·외 한민족의 잠재적 역량을 키워 한민족의 문화적, 경제적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해외동포에 관한 연구와 민족공동체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해왔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활발한 활동이 우리나라의 외교부에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게 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역대 이사장과 소장 소개

1대~4대	이사장 박정수(전 외교부 장관)
5대~8대	이사장 박관용(전 국회의장)
9대~10대	이사장 손세일(전 국회의원, 언론인)
11대~13대	이사장 박관용(전 국회의장)
14대	이사장 장영달(전 국회의원)
1대~13대	소장 이윤기(전 국회의원)
14대	소장 최화식(예비역 육군준장)



해외한민족연구소와 함께 하는 길

(사)해외한민족연구소는 비영리단체로, 회원들과 뜻 있는 분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우리 연구소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개인은 소득세의 10%, 법인은 법인세의 30%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회비·후원금 납부안내

국민은행 009-25-0006-352

(사)해외한민족연구소

회원가입안내

연구소 취지에 동참하는 분들의 회원 가입을 환영합니다. 연구소 회원이 되면, 연구소의 학술·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소가 발행하는 회지 및 자료를 받게 되며 연구소 소장 도서자료의 열람과 대출권리가 있습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대학(원)생·강사·연구원 및 일반인 등 젊은 분들의 회원 가입을 환영합니다.

기업 후원 안내

해외한민족연구소는 국내·외 한민족의 잠재적 역량을 확대하여 한민족의 문화적, 경제적 영역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한 미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한민족연구소와 함께 한민족공동체의 미래와 행복을 설계하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21세기 한민족의 진로를 열어가는 현장에 참여하십시오. 해외한민족사업과, 학술연구 부문을 지정하여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업 후원을 하시면, 연구소 발행 도서에 명시되어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사회공헌에도 이바지하는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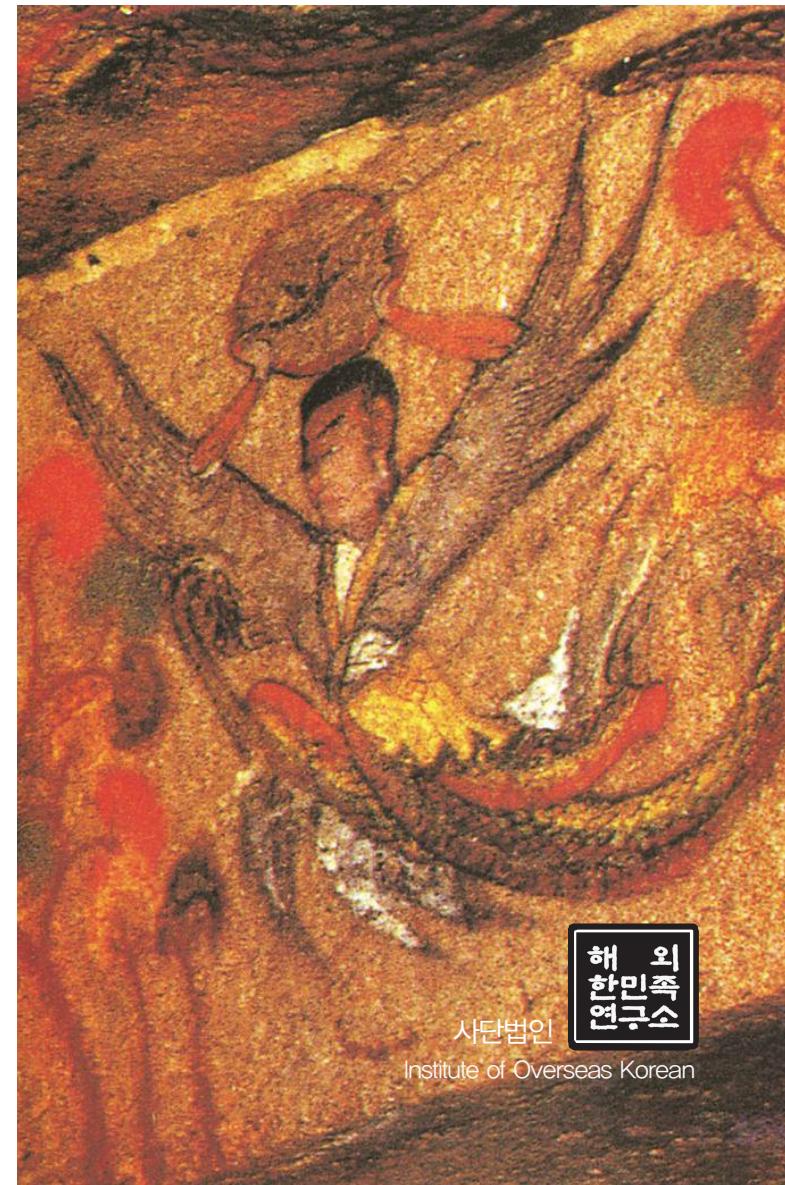
(사)해외한민족연구소
Institute of Overseas Korean

서울시 동대문구 천장산로 14-1, 1층(이문동 264-17)
TEL. 82.2.964.1357 FAX. 82.2.964.2357
E-mail : overseaskor@naver.com
www.overseaskorean.com
www.eurasianbrothers.com

韓

해외동포를 행복하게 하는
한민족공동체

형제민족 공동체를 위한
유라시안 브라더즈



해 외
한민족
연구소

사단법인
Institute of Overseas Korean

한민족공동체! 우리의 자산!

한민족은 유구하고 장대한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열강의 이해와 흥정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는 비운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역사의 주체로 바로 서야만 외교·안보·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미래의 지평을 열어가는 한민족의 소중한 자산인 해외한민족들은 거주국에서의 위상을 향상시키고 모국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민족정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아가 역사주체로서의 지위를 되찾아 21세기 한민족의 역사가 웅비할 때 반드시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700만 해외한민족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현지 국가와 민족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모국과도 협력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한민족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한민족의 문화적, 경제적 영역이 저절로 확대됩니다.

해외한민족연구소는 세계 각지의 코리아타운들이 우리 “한류”의 확산 기지가 됨은 물론, 우리 한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피드백하는 소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해외한민족연구소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을 한민족공동체의 기치 아래 문화와 경제의 고리로 연결하여 민족공영의 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사장 장영달



해외한민족연구소가 해온 일

해외동포 민족정체성 회복사업

창립 이래 지난 25년 동안 동포들이 사는 현지를 답사하여 사료를 수집·연구하는 동시에, 다양한 현지 행사를 통해 해외동포의 민족정체성을 회복하여, 한민족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백일장대회(1993~현재)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동포 3, 4세들에게 우리말과 글을 통해 민족자긍심을 고양시키고 있다.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명동촌 복원(1994)

폐허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교회와 운동주의 생가를 복원하고 김약연 선생의 비(碑)를 바로 세우며 민족의 얼을 되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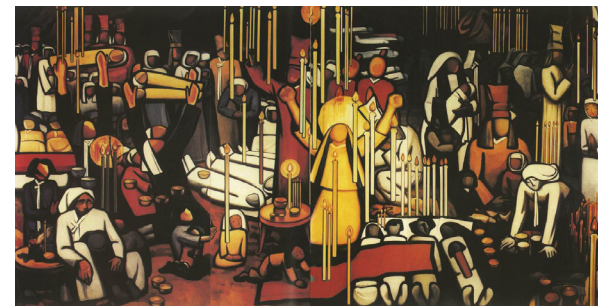
중국 요령성 민속절 제정 및 행사 개최(1994~현재)

한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요령성의 조선족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참가자가 3만 명에 이를 만큼 성황을 이룬다.



카자흐스탄 신순남 화백 전시회(1997, 본 연구소와 국립현대미술관 및 조선일보사가 공동 주최)

세계적인 민족화가 申順南(니콜라이 신) 화백의 이주사화(移住史畵), 1937년 韓民族이 스탈린에 의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할 때의 참상을 형상화한 대서사시(높이 3.2m, 길이 45m)로, 피카소의 '게르니카'와 비견되는 기념비적 작품이다.



민족사 복원 연구

잃어버리고 왜곡된 우리의 고대사를 연구하여 민족사 복원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고구려·발해 유적 연구 및 학술회의 개최(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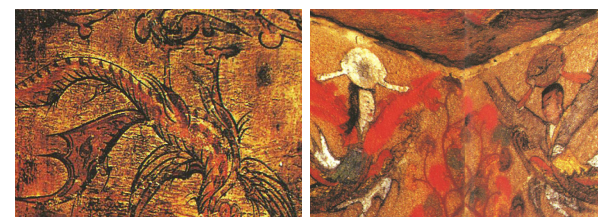
현지 유물·유적 답사를 통한 입체적 연구로 한국고대사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비공개 고구려 고분 벽화 답사, 촬영(1993)

‘장천 1호분’과 ‘오회분 4호묘’ 등 고구려 유적을 직접 답사하여 사진을 촬영, 공개함으로써 고구려 연구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켰다.

‘아! 고구려 - 1500년 전의 고구려 고분벽화전’(1993)

전국 순회전시에 450여만 명의 관람객이 관람하였으며, 고구려를 전 국민적 관심사로 끌어올렸다.



러시아 연해주 신한촌(新韓村) 복원사업 (1997~)

신한촌은 1919년 가장 먼저 망명정부가 세워진 항일독립운동의 근거지로 1937년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한 후 폐허가 되었다. 본 연구소는 망명정부 80주년을 맞아 신한촌에 기념탑을 건립하였다.



국제학술회의 및 강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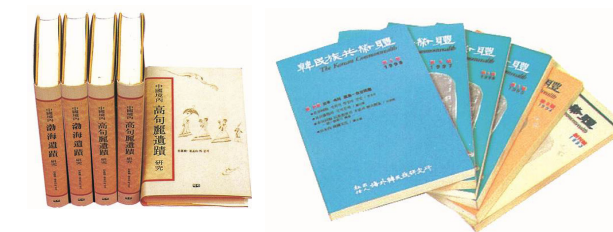
21세기 한민족의 진로를 개척하는 학술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연구결과들을 국내 연구자 및 해외동포단체와 공유합니다.

본 연구소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매년 봄가을에 걸쳐 학술회, 학술강연회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첫째, 한민족공동체 연구 둘째, 민족사 복원 연구 셋째, 21세기 한민족의 미래 전망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도서출판사업

본 연구소의 모든 연구결과를 국내 연구자 및 해외동포 단체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 1993 ~ 『한민족공동체』(지령 22호)
- 1994 『고구려문화국제학술회 논문집』
- 1995 『중국경내 고구려유적 연구』
- 1995 『한 중, 중 한 경제무역용어사전』
- 2002 러시아어판 한국역사서 발간 및 배포
- 2009 『한반도 제3의길』(창립20주년 기념)
- 2013 『북상의 역사창조』(이윤기소장 회고록)
- 2014 『우리는 왜, 연해주로진출해야 하는가』(창립25주년 기념)



해외한민족연구소가 걸어갈 길

우리 한민족과 역사의 뿌리가 같은 형제민족들의 공동체

“유라시안 브라더즈”

우리 연구소는 한민족공동체를 뛰어넘어 “민족 정체성 인식의 확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민족과 상고 및 고대 역사를 공유하였으나,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확장 속에서 우리 한민족과 분리되어 다른 줄기로 뻗어나간 “형제 민족들”과의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한민족의 외연을 넓히고자 합니다.

형제민족들과 “유라시안 브라더즈”라는 개념을 공유하고 각 형제국들의 연구소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역사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일에 착수할 것입니다. 특히 만주와 몽골 및 연해주, 터키와 중앙아시아, 헝가리 및 타타르 사람,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 공동체들이 우리 한민족과 함께 상고 및 고대 역사 공동체로서의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민족 정체성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유라시안 브라더즈” 개념은 유라시아 시대를 이끌어 갈 우리 한민족과 형제민족들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소장 최화식

